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강한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와 중국 부양책 실망..입지 좁아진 원화

서울, 11월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와 증시 등을 엮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80-1410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공화당의 상·하원 싹쓸이 결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되며 미국 증시와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중 코스피와 원화는 유독 약세 압력에 시달렸다.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 진행될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코스피와 원화에 직격탄이 됐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환율 상승이 과도하다는 인식 속 환율 변동성 관리 추정 등에 일방적인 원화 약세 움직임은 잦아들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없이 추락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주 후반 급등했다.

지난 주 달러/원 상승률은 약 0.2%에 그쳐 달러지수 상승률인 1.6%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2주 전만 하더라도 달러/원 상승률은 1.4%로 달러지수 0.7%를 크게 앞선 바 있다.

지난 주 후반 상승 속도가 크게 둔화된 달러/원 환율이 이번 주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련의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더딘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강달러에 대한 힘이 좀처럼 빠지지 못하고 있다. 달러지수는 1년 만의 최고치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중엔 엔비디아 실적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미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주역인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높은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근거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의 빌미가 될지를 두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강한 랠리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재료가 어떻게 소화될지가 관건이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 속 증시의 과격한 조정이 뒤따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은 또 한번의 만만치 않은 변동성 장세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그간 아슬아슬하게 변동성이 조절되온 달러/원 환율은 또 한번 상방 압력을 키우려 할 수 있다. 현재 1410원대에서 형성된 상단 저항력이 어느정도 지속돼야 역내 수급주체들도 막연한 달러 래깅을 막을 수 있다. 달러 강세에 쉽게 흔들리는 원화가 다시 재연될 경우 달러/원 상단 저항 형성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 완화가 증시 약세를 촉발할지,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흔들림이 재연될지가 주목되는 한 주다. 이는 달러/원 환율이 1410원대에서 단기 상단을 형성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는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11/19)를 비롯해 글로벌 PMI 지표가 주목된다. 한편, 중국은 11월 대출우대금리를 결정한다.

국내 주목할 지표로는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와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등이다.

### ▶ 주간 세계 이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여파 속 반도체 업계의 거물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글로벌 PMI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과 유로화가 주목받을 예정이다.

#### ⊙ 반도체, 만세

올해 주가를 끌어올린 인공지능 열풍의 신호탄인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NVDA.O 3분기 실적과 함께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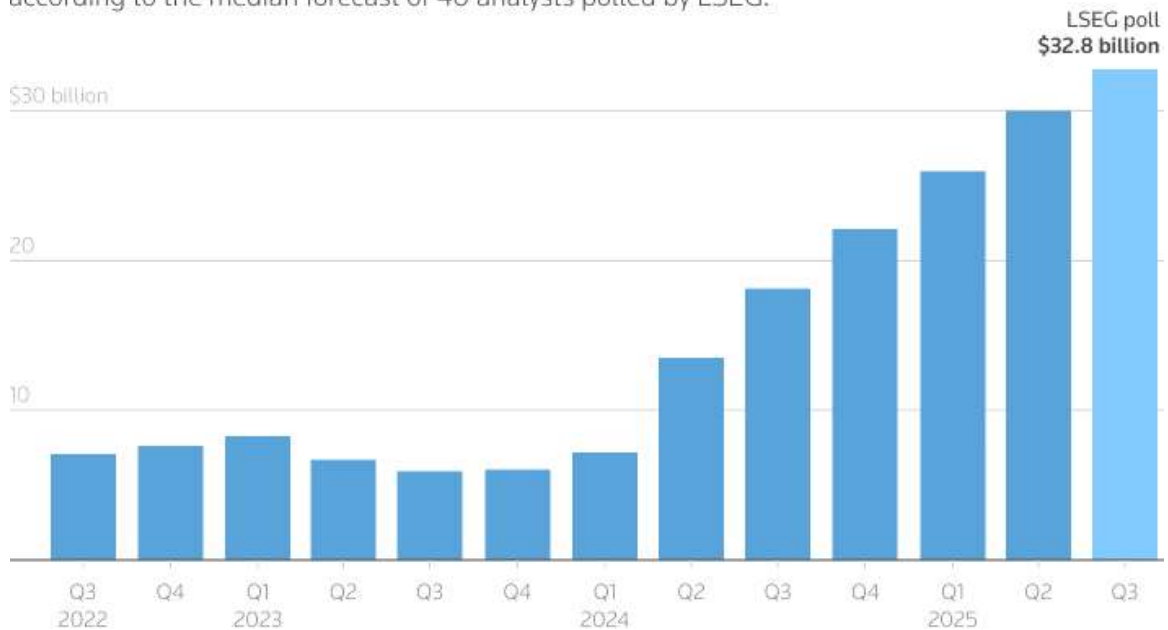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분야의 표준으로 여겨지며 올해 주가가 200% 가까이 상승해 10월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등극했다. 이 반도체 제조업체는 S&P500지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올해 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다년간 기록적인 실적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시장의 AI에 대한 기대가 현실을 앞질렀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20일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80% 이상 증가한 32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LSEG 데이터는 이달 초에 밝혔다.

### Nvidia revenues expected to scale fresh peaks

The AI chipmaker's third quarter revenues are estimated to hit a new high of \$32.8 billion, according to the median forecast of 40 analysts polled by LSEG.



Note: Nvidia's fiscal year runs from February to January.

Sources: LSEG Datastream, LSEG poll | REUTERS, Nov. 14, 2024

### ◎ 10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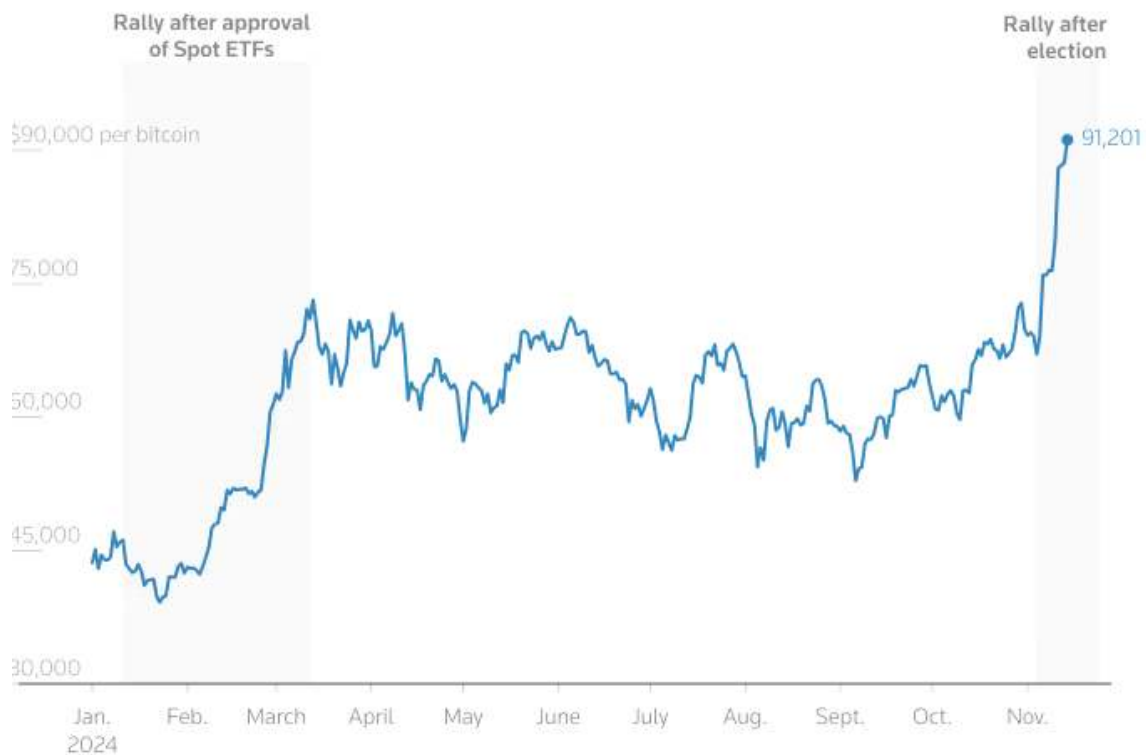
트럼프의 승리로 비트코인 강세가 시작돼 5일 선거일 이후 30%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9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BTC=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조달러를 넘어섰다. 비트코인과 코인의 가치는 엘론 머스크의 테슬라TSLA.O,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META.O,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BRKb.N를 합친 것만 큼이나 높다.

미국의 가벼운 규제 약속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며칠 동안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급증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로이터가 추적하는 가장 큰 ETF는 11월14일까지 한 주 동안 35억 달러가 순유입했으며, 이는 3월15일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비트코인 가격의 여섯 자리 숫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거의 없어 보인다.

### Bitcoin hits new highs after Trump's victory

The largest cryptocurrency has risen by more than 30% since the U.S. elections.



Note: Price as on 08:30 GMT on Nov. 14, 2024

Source: LSEG Workspace | Reuters, Nov. 14, 2024 | By Vineet Sachdev

### ◎ 패리티의 문제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유로 지역 경제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로화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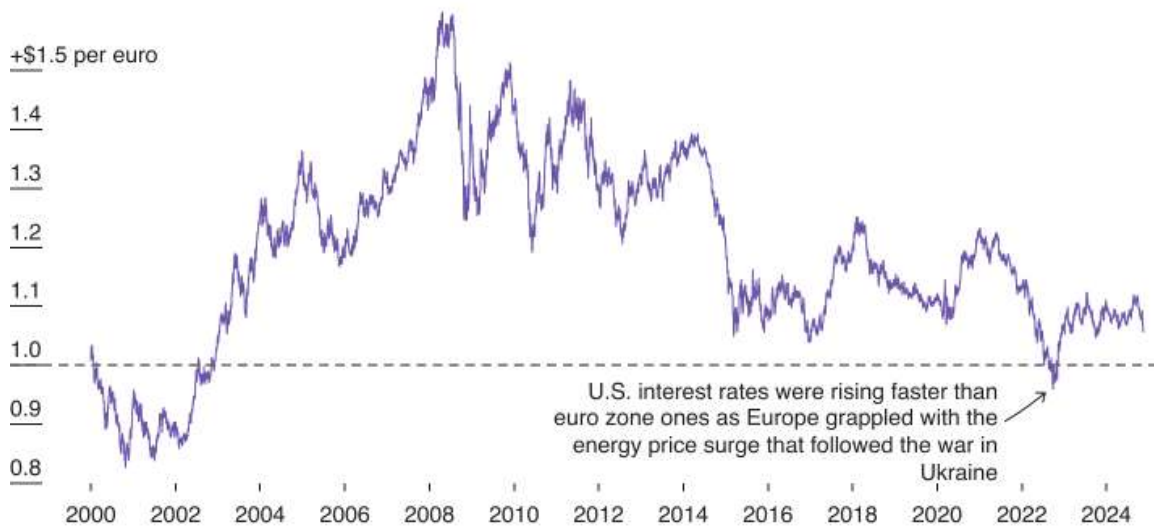
유로화는 약 1.054달러EUR=EBS로 작년 9월 최고치에서 약 5% 하락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유로화가 달러와 동등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ZEW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부정적인 반면 트레이더들은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5명 중 1명꼴이다. 오는 22일에 발표되는 독일 GDP 데이터를 분석하면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유로화 약세는 수출업체에 도움이 되고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은행 대출과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 Euro lingers at one-year low

The euro has fallen to its weakest level in a year, reviving talk the currency could revisit the \$1 dollar mark. Donald Trump's U.S. election win and the prospect of more tariffs could weigh on the bloc's economy.



Source: LSEG Workspace | Reuters, Nov. 14, 2024 | By Kripa Jayaram

### ⊙ 글로벌 제조업활동

지난 금요일 기업 활동에 대한 예비 조사 데이터는 트럼프가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 글로벌 경제를 보여줄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PMI는 글로벌 제조업 활동이 여전히 침체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이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각 국가마다 고유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독일 경제는 새로운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영국의 고용주들은 고용과 비용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재선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가 제안한 수입 관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초기 징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세가 발효되기 전 재고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 향후 시장이 면밀히 주시할 데이터가 될 것이다.

### ⊙ 신흥국 통화정책회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수요일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둔화, 실망스러운 성장률,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루피아 약세IDR=는 현재 3개월래 최저치에 근접하고 올해 고점 대비 4% 이상 하락했다.

그 밖의 신흥 시장에서는 튀르키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리 결정이 오는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다. 남아공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튀르키예의 단기적인 완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주춤해진 트럼프 랠리 속 엔비디아 실적 관심 집중

뉴욕, 11월18일 (로이터) - 선거로 인한 랠리가 주춤해진 후 투자자들이 기술 부문과 인공지능 거래에 관심을 돌리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미국 주식 시장의 다음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엔비디아NVDA.O 주가는 800%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 이 기업은 시장 가치 기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S&P500.SPX 및 나스닥100.NDX과 같은 시장 벤치마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엔비디아는 오는 20일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욕구, AI 거래 및 주식 전반에 대한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말한다.

S&P500지수는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후퇴했다.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가렛 멜슨은 시장이 "지금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매우 강력하다면 이는 투자와 거래에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험 선호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AI입지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놀라운 재무 성과를 이끌어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회계연도 3분기에는 매출이 80% 이상 급증한 330억달러로 184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LSEG데이터에서는 작년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뛰어넘은 이후, 가장 최근에 보고된 분기 수익은 6%를 상회하는 등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한다. LSEG IBES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지난 4분기 평균 79%에 비해 76%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최근 분기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거대 기술 및 관련 기업의 실적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LSEG의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타치네르 딜론은 애플AAPL.O과 마이크로소프트MSFT.O를 포함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3분기 수익이 30% 증가한 반면, 나머지 493개 기업은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2배를 넘어서고 3년여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23% 상승했다. 트럼프 승리는 처음에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라는 그의 공약의 낙관론에 힘입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지난 주에는 시장이 선거의 영향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가는 하락했다.

밀러 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튜 말리는 지난주 금요일 메모에서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연준이 선거 전처럼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적어도 약간의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1월18일 (일)

- ⊙ 특이 일정 없음

11월19일 (화)

- ⊙ 한국은행: 김종화 금통위원 대한상의 조찬 강연 (7:30)
- ⊙ 기획재정부: 1차관 IMF 연례협의단 면담 (17:30)

11월20일 (수)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기획재정부: '24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 (10:00)
-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4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2:00)

11월21일 (목)

- ⊙ 관세청: 11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신성환 금통위원 세계경제연구원 - KB금융그룹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 (10:40)
-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_재정관리관 주재 (16:00)
- ⊙ 기획재정부: '24.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월22일 (금)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간담회 (16:00)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1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1월 18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9월	1.9%	-1.9%
11월 19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1월	44	43
11월 19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NSA, EUR	9월		35.24B
11월 19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치 MM	10월	0.3%	-0.1%
11월 19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0월	1.430M	1.425M
11월 19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0월	1.335M	1.354M
11월 20일	08:50	일본	수출 YY	10월	2.2%	-1.7%
11월 20일	08:50	일본	수입 YY	10월	-0.3%	2.1%
11월 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1월		3.10%
11월 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1월		3.60%
11월 20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15일 주간		192.4
11월 21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11일 주간	223k	217k
11월 22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1월	-12.4	-12.5
11월 22일	00:00	미국	기존주택판매	10월	3.93M	3.84M
11월 22일	08:30	일본	CPI MM NSA	10월		-0.3%
11월 2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9.2
11월 22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6.0	46.0

11월 22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1월	48.8	48.5
11월 22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1월	55.3	55.0
11월 23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11월	73.5	73.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18일 (월)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은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19일 오전 0시)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파리 콜레주 데 베르나르맹에서 연설 (19일 오전 2시30분)

11월19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9시30분)
-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오마하 회의소에서 연설 (20일 오전 3시10분)

11월20일 (수)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금융안정 및 거시건전성 정책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0시)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버지니아대 행사에서 연설 (21일 오전 1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팜비치 포럼클럽에서 연설 (21일 오전 2시15분)

11월21일 (목)

- ⊙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파리 유로플레이스 파이낸셜 포럼 2024에서 연설 (오후 2시10분)
-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오후 10시4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센트럴인디애나 코포레이트 파트너십 행사 참석 (22일 오전 2시25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2024핀렉랩 AI심포지엄 참석 (22일 오전 6시40분)

11월22일 (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프랑크푸르트 유럽은행회의서 연설 (오후 5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 27회 21세기 금융시스템 구축 심포지엄에서 연설 (23일 오전 8시15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종합)-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경상수지 기준 충족

서울, 11월15일 (로이터) -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및 독일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한국은 지난 6월 이후 다시 포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베트남 및 독일은 대규모 대미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에 관해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0.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IT 관련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 유가 완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대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50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80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원화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4분기 연속 절하됐는데 달러에 대해 4.3%, 실질실효환율 기준 3.3% 절하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보유규모가 4530억달러로 6월까지 4분기 동안 800억달러 늘었다면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견조한 수익률과 글로벌 주식, 채권, 대체자산에 대한 꾸준한 배분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90억달러, GDP의 0.5%를 매도했다고 제시했다. 한국은 매 분기마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이 무질하게 움직이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시장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제도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뿐만 아니라 환율 개입 내역을 발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관해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기준이 충족됐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초과, 달러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을 기준으로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해 발표한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트럼프 정권 인수팀, 바이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목표

11월14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광범위한 세제 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소비자 세금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이 두 소식통은 또한 미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대표들이 트럼프 정부 전환 위원회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7월에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 판매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제너럴 모터스 등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전기차 경쟁업체에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인 보조금에 대한 폐지는 콘티넨털 리소스즈의 설립자인 해롤드 햄과 공화당의 더그 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 전환팀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두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세액 공제 폐지로 절감한 비용을 곧 만료될 수조 달러의 세금 감면 연장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단독)-中 배터리 대기업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美 공장 건설할 것"

닝더, 중국, 11월13일 (로이터) -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300750.SZ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문을 열어주면 미국 공장 건설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빈 썩이 로이터에 밝혔다.

그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원래 미국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나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2017년 첫 대통령 임기 중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다양한 보호주의 무역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회사들은 경쟁 및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가장 가파른 무역 장벽의 표적이 되어 왔다.

중국산 배터리는 바이든 정부 하에 시행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며, 정부는 또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이 적용된 모든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사실상 금지 조치다.

백악관이 반대하는 공화당의 법안은 더 나아가 포드 F.N, 테슬라 TSLA.O 와 같은 미국 기업이 라이선

스를 취득한 중국 배터리 기술로 구동되는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기 원하지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8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자동차를 팔고 싶다면 그들은 여기에 공장을 짓고 우리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썩 회장은 CATL의 미국 확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 그들이 투자에 개방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썩의 발언은 11월5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요 중국 공급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12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